

해남군민광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구 청사 철거 마무리...군민친화형 소통 공간 기대

철거 부지 문화재 시굴 조사·수성송 연구 등 정비

해남군이 구 청사 철거작업을 마치고, 군민광장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구 청사 철거 작업은 도로변으로 철골 시설물을 100여미터 설치하고, 천연기념물 수성송 주변으로는 이중헬스과 고가 살수차, 초장축 압제기 등 장비를 최대 동원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해체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주변 상가 등 인

접한 건물간의 이격 거리가 가까워 까다로운 해체작업이 예상됐으나, 공사 구간을 전면 통제해 가운데 안전하게 청사 철거가 진행되면서 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군은 곧바로 군민광장 조성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으로 구청사 철거구역에 군민친화형 열린 광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사 민원실 입구의 가로선을 연

장해 차를 확장하고 대형버스 2대가 주·정차 가능하도록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후박나무 등으로 수성송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풍림 식재와 나무 주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광장바닥은 석재를 깔게 된다.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철거된 부지의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 430호 수성송의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군민광장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과 설문조사, 청사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군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구청사 철거

구역과 현 군민광장에 대한 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남 읍성 성곽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은 군민광장과 신청사를 연결하는 계단설치 공사와 내측 성벽을 축조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새롭게 조성되는 군민광장은 모든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여 조성된다”며 “수성송 주변에 대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과 과거 군민광장의 시설개선에도 속도를 내어 군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군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자가진단키트 3만3천여개 배부

목포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3만 3,000여개를 감염취약시설에 배부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키트 제작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리가 기부한 2만 9,750개와 전남도가 지원한 5,000개 등 자가검사용 키트 총 3만 4,750개를 최근 수령했다. 이중 3만 3,350개를 지난 21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유흥업소, 장애인 시설, 선원, 외국인사업장, 여성·아동

복지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 배부하고, 전남도 지침에 따라 주2회 진단검사검사(PCR 1회, 자가키트 1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산정농공단지, 건설현장, 시내버스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1,471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주에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25일부터 신청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1명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다. 박규래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지역업자 등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지급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완도군에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재배중인 목이버섯.

/완도군 제공

완도, 버섯산업 경쟁력 강화 ‘탄력’

산림청, 기술개발 공모 선정 미래 먹거리 산업 토대 마련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목이버섯 신품종 현장 적응성 시험 및 실증 재배’와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상품 연구와 연구’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버섯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인 ‘산림기술 실용화 소재 발굴 연구’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분야 공모 연구사업’에 선

정돼 총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완도군에서는 지역 특화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해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목이버섯은 식감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좋아 지속적으로 유통 물량이 증대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량 중 95% 이상이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 대체를 위한 우수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2023년까지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에 대응해 지역 버섯 산업의 성

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에 참여해 농가에 신품종을 공급함으로써 완도군 버섯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이버섯은 혈액 응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고 비타민B, 비타민D, 칼슘 등이 풍부해 여성 피부미용과 골다공증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무안군의회는 최근 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무안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인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무안군의회는 최근 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3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3년간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무안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김대현 의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운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 발급

영암군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선착순 80%로 제공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침체한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올해에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발급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용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가맹점 및 내내 39개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과 관련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농약 빈병 수거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무안농협 현경지점 자재판매장 앞에서 마을별 농약 빈병 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농경지, 하천, 도로변 등의 농약 빈병과 농약봉지를 45개 마을별로 미리 수집해 왔다가 매년 초에 수거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중량 1,757kg, 5톤차량 1대와 1톤

차량 3대 분량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합평사업소에 배출했다. 박장심 부녀회장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만큼 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 신전면 지사협, 취약계층 지원

강진군 신전면 지사협 위원들은 최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전면 생계 주거 의료 등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생필품과 강진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랑더하기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 500만 원

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박동열 민간위원장은 “나라와 지역이 잘살고 풍족해질수록 어려운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난다”며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해 혼자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사협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 생필품 나눔 봉사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는 최근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별로 저소득 소외계층 350세대를 대상으로 생필품 꾸러미 나눔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 마스크와 화장지, 물티슈 등 총 5종을 비대면으로 전

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매자 자원봉사자회장은 “추운 겨울 작은 마을이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경제 사회적 격결과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어르신과 이웃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